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8호 2014년 2학기







**CONTENS**

**우송대학교 소식**

- 04 우송 100주년 선포식
  - 우송 60주년 기념식
  - 축제
- 06 동아일보 대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대학교' 선정

**졸업 및 취업**

- 07 4학년 졸업 및 취업 소식

**우송간호 국제화 과정**

- 08 Fairmont State University 복수학위과정 후기
- 10 제 11회 외국어 경시대회 영어 부문 입상자 해외연수
- 11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학습
  - “글로벌 간호사를 대비하는 제2외국어 자격증준비”
  - “글로벌 간호사를 대비하는 인터넷 제2외국어 강의”

**우송간호 역량 강화**

- 12 영어 경진 대회
- 13 외국인 환자 돌봄 서비스 경진 대회
- 14 시뮬레이션 경진 대회
- 15 모의 면접 경진대회
- 16 인턴십 프로그램

**간호학과 동정**

- 18 다양한 특강 소식
  - 연세 의료원 인사 팀장 특강
  - Fairmont State University 이천표교수 특강
  - 학술제
  - 체육대회
  - 미리가보는 대학
  - 멘토-멘티 프로그램 ‘Buddy Buddy’

**학년별 대표 인사**

- 22 학회장 · 편집국장
- 23 각 학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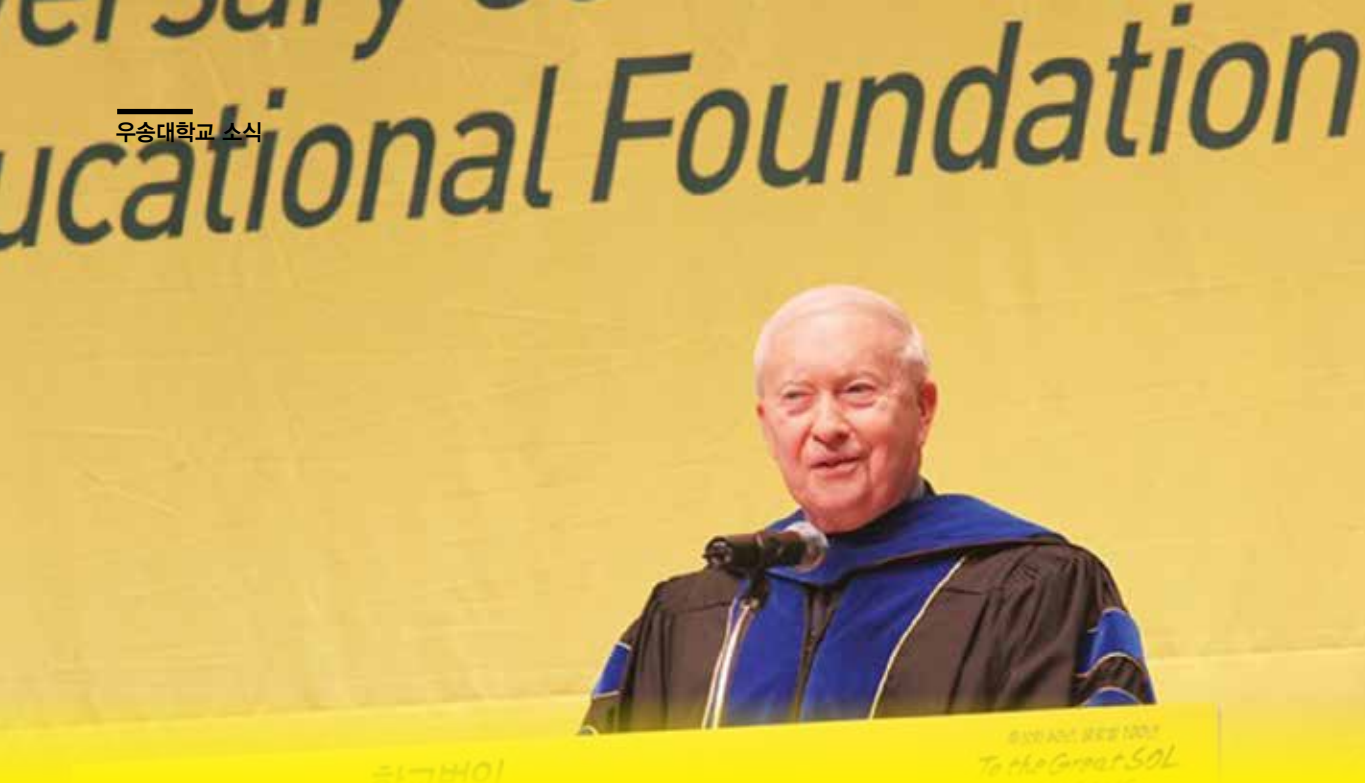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 집 장. 황 지 영  
발 행 처. 우송대 간호학과 편집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 우송 100주년 선포식

### 우송 60주년 기념식

## To the Great SOL, WOOSONG

2014년 10월 8일, 우송대학교에서 60주년 기념식이 우송예술회관에서 이루어졌다. '특성화 60년, 글로벌 100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기념식은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었다. 이 날 기념식에는 김성경 이사장님, 존 엔디컷 우송대학교 총장님,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님을 비롯하여 중국 북경외국어대학교 총장님, 미국 인카네이트월드대학교 총장님, 베트남 호치민 경제대학교 부총장 및 교수 학생 등 1,400여명이 참석해 창학 60주년을 기념했다. 기념식에서는 특별 공로상, 30년 장기 근속상, 자랑스런 우송인상, 글로벌 동문상 등 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이 되었다. 또한, 우송대 국제 경영학과 출신인 '쉬원페이'씨는 형편이 어려운 중국 유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해달라며 60만위엔(한화 약 1억 2천)을 기부했다.

이 행사외에도 많은 학과에서는 6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보건복지대학에서는 '아시아권 보건복지 리더양성을 위한 영어 경진대회' 및 '외국인 환자 돌봄 경진대회'를, 사회복지아동학부는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을, 글로벌한식조리학과에서는 '푸드 위크 코리아'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 황지영 기자



특성화 60년,  
글로벌 100년

### 축제

###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던 제 60주년 우송제”

2014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우송대학교 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우송60주년을 기념하는 “특성화 60년 글로벌 100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25일 수요일인 축제 첫 날에는 각 학과별, 동아리별 부스들이 나란히 설치되어 축제를 꾸몄다. 간호학과는 오레오 튀김과 치즈스틱의 먹거리를 제공하였고 풍선 불기 게임을 통해 문화상품권도 제공하였고, 외식산업경영학과는 풍선이 터지는 게임부스를 설치하였고, 사회복지아동학부는 아이스티와 튀김감자를 파는 부스를 운영하였다. 또, 학교에 대한 염원과 메시지를 담은 60주년 나무꾸미기 체험, 향초 만들기 체험등 다양한 체험들도 축제의 흥을 돋우었다.

25일 목요일 축제 둘째 날에는 저녁 7시 30분부터 우송 60주년 “Sol Concert”를 개최하여, 아이유, 제국의 아이들, 김장훈 밴드, 스위트소루, 허각, VOS 등 다양한 가수들이 무대를 장식하였다.

❖ 최수지 기자





**동아일보 대학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대학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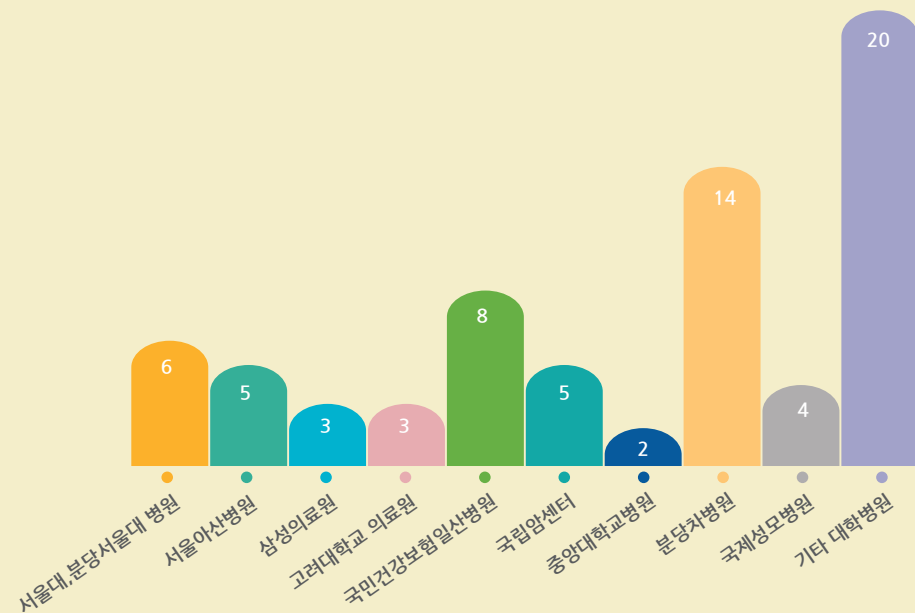
“우송대학교, 2년 연속 ‘청년드림’ 최우수 대학교 선정”



우송대학교는 2014년 8월 동아일보와 채널A가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청년드림 대학에 선정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 되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것으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지역역량과 취업률 모두 상위 40%에 드는 우수대학으로 평가 되었다. 1년 4학기 제도로 강도 높은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 우송대학교는 올해도 9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용상 우송대 입학취업처장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진로 설계 등의 단계를 통해 고부가가치형 인재로 졸업하기까지 대학이 얼마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청년 드림 대학은 이런 관점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라고 밝혔다.

❖ 황지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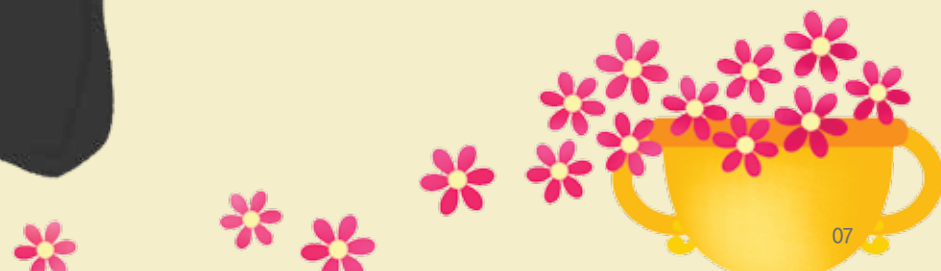
## 4학년 졸업 및 취업 소식



2015년 2월 13일 11시 우송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우송간호 3기 학생들의 학위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졸업생들은 교수님들과 부모님들로부터 4년간의 노력에 대한 결실에 대해 많은 축하와 박수를 받았으며, 간호학과 이수빈 학생이 총장상을 받았고, 연현정, 조민경, 김동희, 김지은 학생이 공로상과 협회장상을 받았다.

이번 간호학과 3회 졸업생들은 국가고시 100% 합격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에 100% 채용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는데, 서울대 및 분당서울대(6명), 서울아산병원(5명), 삼성의료원(3명), 고려대학교 의료원(3명),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8명), 국립암센터(5명), 중앙대병원(2명), 분당차병원(14명), 국제성모병원(4명) 등 다양한 대학병원에 합격을 하였다.

❖ 최수지 기자





## Fairmont State University 복수학위과정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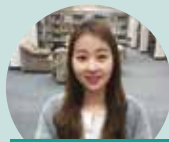


### Fairmont state university(FSU)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Fairmont State University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과정 2년 이수 후 2년간 미국의 Fairmont State University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는 프로그램으로 4년 동안 한국과 미국대학의 학사학위는 물론 양국 간호사 면허 2개를 모두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 최수지 기자

Q : Fairmont State University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13학번 박진영

A: 우송대학교에 지원할 때부터 2+2 복수학위제가 있는걸 알았습니다. 입학한 후에는 막연히 '나도 저 프로그램에 도전해보고 싶다' 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1학년 2학기에 들어서면서 복수 학위제도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고 지원 자격 요건들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기 동안 학점관리를 꾸준히 해놓고 겨울학기에는 학업을 병행하며 지원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토플을 준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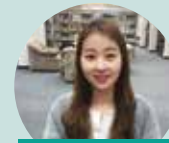


12학번 김예원

A: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한테 가장 필요 했던 건 영어실력이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서 1학년 끝나고 바로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담당 교수님이셨던 이인환(Rachel) 교수님께 토플이나 학교 성적 등 필요한 입학 조건을 여쭙보고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어학연수라는 좋은 환경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사귀면서 제 실력이 단기간에 쑥쑥 늘어서 입학 조건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SU에 지원을 하려면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복학해서도 성적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Q :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소감은 어떤가요?



13학번 박진영

A: 처음에 합격소식을 들었을 땐 믿기지 않았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 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12학번 김예원

A: 먼저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공부도 어렵고 우송대에서 공부한 것만큼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차차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겁도 많이 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의심도 되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어떻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FSU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면 너무 고민하고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잘 되든 안 되든, 어느 쪽이든 얻어가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Q : 우송대학교와 Fairmont State University의 프로그램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3학번 박진영

A :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시험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송대학교에선 한 학기에 크게 중간, 기말 고사로 학점을 내지만, FSU에서는 약 2주에 한번씩, 한 챕터가 끝날 때 마다 본 시험들을 평균 내서 학점을 산출하는 형식입니다. 또, 우송대학교에서는 3학년 여름학기부터 실습을 나가지만, FSU에서는 첫 학기엔 일주일에 한번 기본간호실습을 나가고, 두 번째 학기엔 일주일에 두 번 각각 성인간호와 모성간호 실습을 나간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Q : 우송대학교와 Fairmont State University의 프로그램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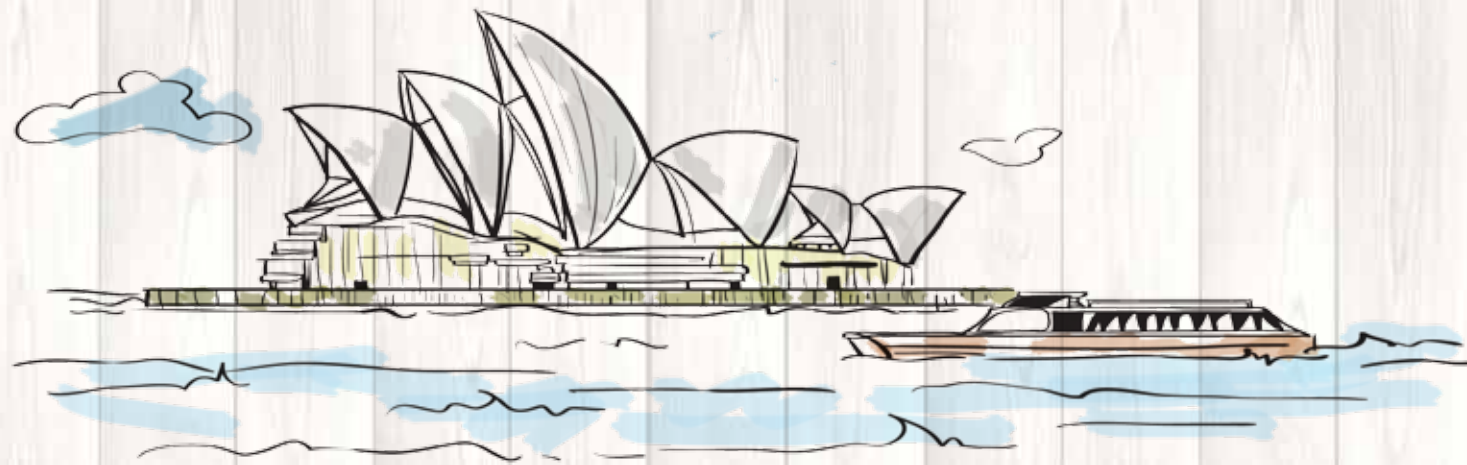
12학번 김예원

A : 제가 FSU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우송대 간호학과에 입학하고서도 학과에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자주 국제간호사에 호기심이 생기고 제 꿈도 그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1학년이 끝나자마자 휴학을 하고 필리핀으로 1년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획해서 복학하고 2학년 1학기 때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FSU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 제 11회 외국어 경시대회 영어 부문 입상자 해외연수

“진로에 대한 폭 넓은 시야를 얻다! 호주 해외 연수”



2015년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3학년 김건, 엄미연, 2학년 정형오, 박소영 학생은 영어 경시대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주의 The University of Queensland(UQ)에서 연수를 하였다. 학생들은 6시간 정도 Communication skills, Australian History, Australian Animals & plants & Foods & Culture, 3 Mins Thesis, Campus survey, Group Presentation등의 수업을 UQ학생들과 합동으로 들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은 호주의 문화에 대해서 체험하고, 그들이 사는 방식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생각과는 달리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 아닌, 오히려 ‘다인종, 다문화의 나라’로 점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가 녹아 들어 있는 호주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

였다. 이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의 영주권 취득이 보다 수월한 직종으로 간호사가 꼽혀, 학생들 모두가 더 넓은 시야로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 모두는 호주에서 배우고 얻었던 값진 경험들을 토대로 안목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런 기회를 제공한 학교 측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글로벌 인재로 지향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국제적 간호 역량을 더 키워나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밝은 미래를 앞으로 계속 기대한다.

❖ 이도희 기자

##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학습

“글로벌 간호사를 대비하는 제2외국어 자격증준비”



일본어

위혜진 학생 (JLPT N1)

저는 일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 일부러 일본 노래를 찾아 듣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서 무조건 암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JLPT 2급 문제집을 구매하여 헛갈리는 한자들을 무조건 외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중국어

정민주 학생 (HSK)

저는 중국어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따로 중국어를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의 비결이라면 중국어 단어를 열심히 외웠던 것입니다. 처음 보는 HSK시험이라 준비가 부족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매우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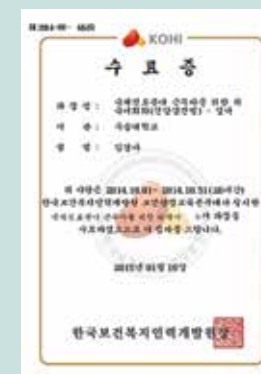
러시아어

송혜리 학생(FLEX)

저는 3년간 수업시간에 충실했고 따로 시간을 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어 수업을 듣는 마지막 학기에 문법을 훑어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FLEX에서 고득점을 얻으려는 생각보다 내 실력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준비는 간단하게 시험문제의 유형을 파악했습니다. 병원취업을 준비하는 지금, 러시아어를 배웠고 자격증을 딴 것이 큰 도움이 되어 뿌듯합니다.



“글로벌 간호사를 대비하는 인터넷 제2외국어 강의”



2014년 2학기 간호학과 학생들은 보건 인력 개발원에서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국제진료분야 근무자를 위한 외국어 회화’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진료과목, 건강검진 관련된 회화를 여러 언어(영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배울 수 있었다. 그 중 영어 강의를 들은 윤상혜 학생은 “강의를 통해서 IGN실습(International Global Nursing Practice)을 가기 전에 실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학용어, 영어표현 등을 배울 수 있어, 국제 진료소 실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 이유연 기자



## 영어 경진 대회

### “학생들의 뛰어난 영어실력을 맘껏 뽐냈던 영어 프레젠테이션”

2014년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건복지대학 학생들이 참여한 영어 프리젠테이션 대회가 도서관 강당과 우송타워에서 개최되었다. 10월 30일에는 2학년이, 뒤를 이어 31일에는 1학년이 참가하여 빛나는 영어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보여주었다. 모두의 열정으로 그 열기가 뜨거운 대회의 현장이었다. 간호학과는 1, 2학년이 각각 4팀씩 참가하여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모두 휩쓸었다.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이도희 학생은 “일주일간 밤샘 연습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무대 위에서 연습한 프레젠테이션을 팀원들과 당당하고 차분하게 영어로 큰 실수 없이 했다는 것에 뿌듯하고 나 스스로도 값진 경험을 한 기회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 이도희, 이유연 기자



## 외국인 환자 돌봄 서비스 경진 대회

### “제 2외국어로 간호 연극을 하다! 외국인 환자 돌봄 서비스 경진대회”



2014년 9월 15일 우송대학교 서 캠퍼스 우송도서관 강당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동안 영어 5팀, 일본어 및 러시아어 각 1팀 등 총 7팀이 다양한 언어로 연극을 펼쳤다. 외국어 연극은 경기도중 십자 파열 부상을 입은 축구 선수를 돌보는 내용, 얼굴에 화상을 입은 외국인 환자가 그 흉터수술을 위해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내용, 백혈병을 가진 어린 나이의 러시아 환자가 한국에서의 병원 생활을 하는 내용, 일본인 환자가 한국에서 식중독에 걸려 응급실에 방문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를 쓰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외국인환자 돌봄 대회 경진대회를 하면서 다양한 언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정혜진 학생은 “러시아 연극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했는데 막상 다 하고나니 이렇게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경진대회를 신청 한 것이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외우게 된 러시아어들을 수업시간에 들을 때 훨씬 익숙해서 잘 외워졌다. 평소에 러시아어 공부를 시간 내서 공부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어의 다양한 표현을 접한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만족한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부족했던 점을 더욱 보완하여 더욱 완벽하게 해보고 싶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 김영주, 최수지 기자



## 시뮬레이션 경진 대회

“임상 사례를 재구성한 Simulation 경진대회”

2014년 10월 24일에 학술제 행사와 함께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Simulation 경진대회가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3학년 학생들은 임상 실습에서 직접 겪은 인상 깊은 사례를 재구성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Simulation은 당뇨(DM), 심근경색(MI), 급성췌장염(Acute pancreatitis), 지주막하 출혈(SAH)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지며, 심사결과 자립상 1팀, 단정상 3팀, 독행상 4팀등 총 8팀이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대회에 참여했던 박수민 학생은 “임상 실습에서는 관찰만 하였던 간호를 직접 수행해 볼 수 있어 학교 수업에서 배운 이론과 임상실습 사이의 격차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남겼다.

❖ 윤지애 기자



## 모의 면접 경진 대회

“한 발 앞선 취업준비! 모의 면접 경진대회”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취업대비 모의면접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병원별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국립암, 일산병원 등의 팀을 구성하여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에서 전다혜, 엄영지, 김영균, 황지영, 박연술, 박정란, 위혜진 팀이 자립상을 수상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의 면접 경진 대회에 참가한 황지영 학생은 “모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에 나올 질문들을 준비하며 많은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이는 실제 면접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 박준영 기자







## 인턴십 프로그램

###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간호대 학생 인턴십 수료”

겨울 방학기간동안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생 6명이 참여하였다.

간호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은 간호 대학생들의 방학을 활용하여, 환자중심의 임상간호실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본간호중재 및 다양한 술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 실습만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각 병원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간호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간호 현장 실습 경험을 제공하여 본인의 자질 함양과 추후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어 매년 지속적으로 큰 호응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명리

삼성서울병원 인턴십 수료자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2015 동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기 유명리입니다. 간호단위 실습으로 신경외과 중환자실을 배정받았는데, 프리셉터 선생님께 일대일 교육은 물론 함께 환자를 직접 간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중환자실 환경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나가는 실습에선 교과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인턴십에선 이 병원에서의 근무환경, 간호사로서의 삶, 만족도, 복지 같은 부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윤시원

서울성모병원 인턴십 수료자

서울성모병원 인턴십을 다녀온 12학번 윤시원입니다. 인턴십을 하는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Premature Intensive Care와 선천성 기형이 있는 신생아들을 간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실습 때 해보지 못했던 활동들(약물 직접 계산해서 주입하기, 어떤 간호가 필요한지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직접 간호 제공하기, 문서 작업하기 등)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고 학생으로서 임상실습때 느껴보지 못한 간호사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깊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위혜진

서울아산병원 인턴십 수료자

서울아산병원 인턴십은 저에게 많은 의미를 준 기회였습니다. 중증도 높은 환자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고 미래에 그런 간호사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의 미래를 상상하고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100명의 학생 중 10명의 대표를 뽑는데, 그중에 우송대학교 학생 2명이 올라가 노란 유니폼으로 상을 받았던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 박준영 기자



## 다양한 특강 소식

### 연세 의료원 인사팀장 특강

“취업에 대한 목표의식을 확실히 하라!”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에 우송타워 6층 강당에서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세의료원 권영식 인사팀장님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특강은 평소 세브란스병원에 관심이 많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세브란스병원이 추구하는 인재상, 면접 시 주의사항 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와 특히 의료진들이 서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 협동력이 넘치는 세브란스병원만의 장점을 알려주었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 목표병원을 세운 뒤, 목표병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병원이 추구하는 상에 알맞게 노력을 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 마지막으로 내년 취업시즌에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생들을 면접 때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으면 하고, 같이 근무하게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의사를 표하셨다.

❖ 최수지, 김영주 기자

### Fairmont State University 이천표 교수 특강

“자신만의 핵심 능력을 개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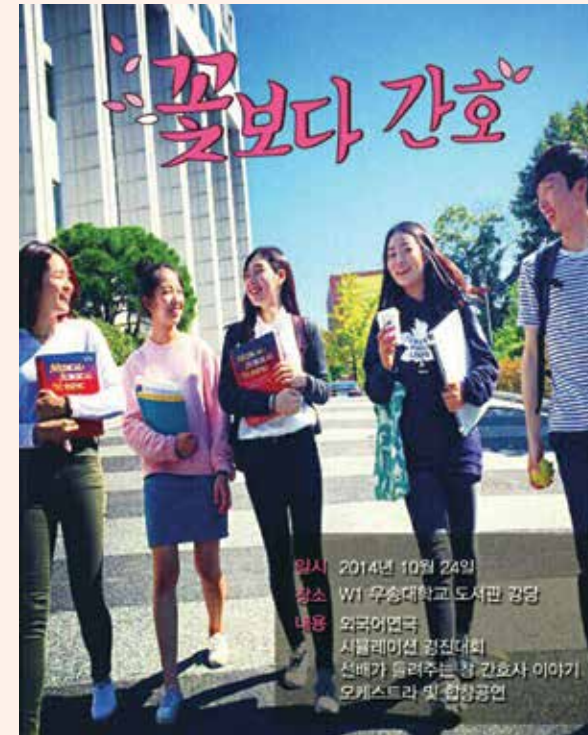
2014년 9월 2일 우송타워 4층 강당에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Fairmont State University의 이천표 교수 특강이 이루어졌다. 이천표 교수는 다양한 예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자신의 핵심역량을 더 잘 개발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분야에 정통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개발하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타인과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서로가 함께 일하며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 윤지애, 박준영 기자



## 학술제

“학생들의 지식을 뽐냈다!  
꽃보다 간호! 간호학과 학술제”



2014년 10월 24일 우송대 도서관 강당에서 제5회 학술제가 열렸다. 먼저 1부의 순서로 3학년들이 임상실습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학술 포스터를 소개하는 순서가 진행 되었고, 이 학술 포스터들은 도서관 강당에 전시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다음 순서로, 전 학년 모두가 참여한 간호 지식과 연관된 문제를 푸는 골든벨이 개최되었다. 학생들이 지난 여러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성과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열띤 참여를 하여 학술제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2부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 관련 외국어 연극이 진행되었다. 우송대 간호학과가 지향하는 글로벌 간호에 걸맞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간호와 관련된 상황들을 설정하여 유창한 외국어를 뽐내는 연극을 선보였다. 마지막 순서로는 모니카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나이트게일 합창단이 'Heal the world'와 '이이'를 합창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로 마무리를 지었다.

❖ 이도희, 이유연 기자

## 체육대회

“학생들의 열정과 단합이  
눈부셨던 체육대회”



2014년 9월 22일에서 23일, 이틀 간 우송대학교 서 캠퍼스 잔디구장에서 우송대학교의 모든 학과들이 참가한 체육대회가 열렸다. 간호학과가 참가한 종목은 피구, 발야구, 줄넘기, 농구, 계주였으며 모든 종목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농구 종목에서는 준결승전까지 진출하는 엄청난 성과를 내며 크게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간호학과가 참여하는 모든 경기에서는 학생들의 열띤 응원과 단합을 볼 수 있었으며 우송대학교 체육대회는 성황리에 전개되며 철도차량시스템학과와의 우승으로 그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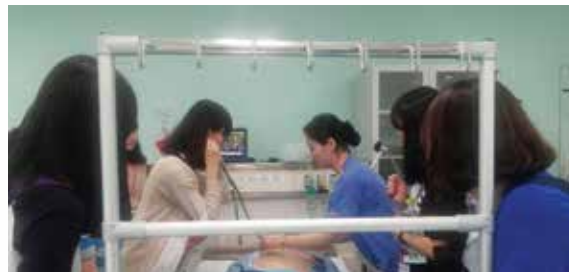
❖ 이도희, 이유연 기자



## 미리 가보는 대학



### “간호학을 체험하는 예비 새내기!”



2015년 2월, 2014년 수시 1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미리 가보는 대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간호학과 교수님과 학생의 강의와 설명을 듣고 직접 실습 체험을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과학관 5층에서는 모의실습병원인 SOL-Hospital을 견학하고 직접 활력증후를 측정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간호학과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할 수 없었는데 미리 가보는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잠시나마 실제 간호사가 된 기분이었고 만족스러웠으며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소감을 남겼다. 마지막으로는 다함께 다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기념촬영을 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 이유연 기자

## 멘토-멘티 프로그램 ‘Buddy Buddy’



### “선후배와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

2014년 9월부터 12일까지 강창희 교수님의 지도 아래 간호학과 학생들의 화합을 돕기 위한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일환인 ‘Buddy buddy’가 진행되었다. 버디 버디는 총 10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평소에 모이기 힘든 1,2,3학년이 2주에 한번씩 모두 모여 자신들이 계획한 활동들을 하는 친목도모 프로그램이다. 이번 2학기에는 1학과와 달리 각 팀마다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총 3회에 걸쳐 수행하였다. 학생들은 ‘연극관람팀’, ‘카페탐방팀’, ‘영화감상팀’, ‘대전탐방 및 문화생활’, ‘TOEIC 점수 향상팀’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하였고 한 학기 동안 했던 활동들을 2015년 1월 12일에 성과발표회를 통해 발표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버디버디에 참여한 2학년 장정임 학생은 “혼자라면 지치고 힘든 학과 생활이지만 선배에게 힘이 되고 후배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줄 수 있는버디버디를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번 한 학기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윤지애 기자







## 학년별 대표 인사

### 학회장 인사



안녕하세요? 2014년도 2학기 학회장 송혜리입니다. 바빴던 2학기도 어느새 끝이 보이네요. 1학기 때 미뤄진 많은 행사들로 걱정부터 앞섰었는데, 학생회와 학우들의 도움으로 모든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파자마 톡, Buddy buddy 등의 학년 간의 교류 프로그램이 거듭해서 진행될 때마다 간호학과와 예전 선-후배 관계가 말로만 언니-동생 관계가 아닌 진짜 언니-동생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희가 졸업한 뒤에도 간호학과와 유대감이 계속 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 편집국장



안녕하세요. 2014학년도 2학기 편집국 국장을 맡은 황지영입니다. 먼저, 제가 간호학과와 'Sol-Nursing Times'에 총괄 기획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번 소식지를 제작하면서 2학기에도 간호학과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많은 행사 등에 참여하여 학과를 빛내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많은 대회가 있었는데, 간호학과 모든 재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어서 큰 성과를 이뤄낸 한 학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8호 'Sol-Nursing Times'가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과 재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고생 많았던 편집국 부원들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각 학년 대표



#### 1학년 과대 맹수민

과 대표를 처음에 할 때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처음에만 힘들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여러 일들을 해보니 나만의 비법도 생기고 처음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과대표 일을 내가 언제 다시 해보겠느냐 라는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학생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하였습니다. 과대표 일을 통해 어른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고 어려운 일들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힘든 점은 많았지만 나에게 조그만 사회생활의 경험을 주었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해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 2학년 과대 현지혜

안녕하세요. 2학년 과대표 현지혜입니다. 먼저 한 학기 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과대' 라는 일을 하면서 힘든 점도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 친구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는 굉장한 뜻 깊은 시간 이였습니다. 비록 많이 서툴고 일도 빠르게 못했지만 믿고 응원해주고 따라 와준 13학년 친구들에게 매우 고맙습니다. 매번 일에 치여서 힘들어 보일 때 힘내라는 말이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3학년 과대 임연주

안녕하세요. 3학년 과대표 임연주입니다. 오늘에서야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과대표를 잘 해낼 수 있게 도와준 선배님들을 포함해 12학년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지칠 때 마다 따뜻한 한마디씩 응원을 보내주어서 고맙습니다. 과대표로서의 방향을 찾도록 고민도 들어주시고, 지도 해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과 또 동기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4년간의 대학생활을 마무리 하게 될 우리 3학년 모두 내년에 힘내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모두에게 부족한 과대표였지만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와 줘서 감사합니다.



#### 4학년 과대 김동희

안녕하세요. 3기 졸업생 11학년 김동희입니다. 대학생활의 마지막인 4학년 2학기 과대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가장 힘들기도 한 시간이었지만 교수님들 그리고 동기들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대라는 자리는 그 학년을 대표해서 단순히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동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수님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자 우송대 간호학과를 더욱 멋지게 빛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 있지만 학생 때 경험했던 그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대표하여 더 멋진 간호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 8호 2015년 1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